

2023년 11월 21일

FOR IMMEDIATE RELEASE

콘택트 포인트: 흥유진, 마케팅&디자인 이사
이메일: Yoojin@taesanliquor.com



THE GLENTURRET 2023 RELEASE ARRIVES IN SOUTH KOREA.

더 글렌터렛 2023년 릴리즈가 한국에 곧 출시됩니다!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증류소 더 글렌터렛 증류소에서 생산한 글렌터렛
싱글 몰트 2023 릴리즈가 한국에 출시됩니다.

더 글렌터렛의 공식 한국 파트너 TSL(태산주류)는 더 글렌터렛 2023년 릴리즈의 국내 출시를 이제 막 앞두고 있습니다.

2023년 11월 21일 대한민국 서울 – 1763년부터 핸드 크래프팅 싱글 몰트 위스키를 생산해온 스코틀랜드의 가장 오래된 증류소 더 글렌터렛의 위스키가 출시될 예정입니다. 이번 코어 릴리즈는 더 글렌터렛의 국내 공식수입사인 TSL(태산주류)이 2023년 11월 그리고 12월 내 국내 시장에 유통할 예정입니다.

더 글렌터렛 스카치 위스키는 매해 달라지는 기후 및 오크통 등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최적의 위스키를 만들기 위해 매년 다른 빈티지 위스키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명품 크리스탈 공예품 브랜드인 라리끄에서 디자인한 보틀에 담겨져 위스키의 가치를 한층 더 돋보이게 합니다.

올해 출시된 ‘더 글렌터렛 2023년 릴리즈’는 더 글렌터렛 트리플 우드 싱글 몰트, 더 글렌터렛 10년 피트 스모크드 싱글 몰트, 더 글렌터렛 12년 싱글 몰트 그리고 더 글렌터렛 15년 싱글 몰트로 이렇게 4가지 주요 핵심 상품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모두 한정 수량으로 출시됩니다.

“더 글렌터렛은 역사 깊은 브랜드로 2023년 릴리즈를 국내에 자랑스럽게 소개드립니다. 각 릴리즈는 매년 조금씩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차이를 직접 경험해 보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TSL의 대표 김주호 대표이사는 더 글렌터렛 2023년 릴리즈를 소개하며 다음과 같이 덧붙였습니다. “올해 초 우리는 2022년 릴리즈를 한정수량으로 국내에 소개드린 적 있는데 평이 매우 좋았습니다. 또한 올해 더 글렌터렛 증류소는 IWSC에서 최고의 명예라고 할 수 있는 ‘2023년 최고의 스카치 위스키를 생산하는 증류소’상을 받았음을 기쁘게 전해드립니다. 이로인해 더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더 글렌터렛을 여러분께 소개드립니다.”

제이미 모리슨 (Jamie Morrison, 더 글렌터렛 글로벌 앰버서더) “2023년 레인지는 소비자 분들께 보다 더 폭넓은 선택의 풍미를 제공합니다. 우리가 자랑스럽게 선보이는 싱글 몰트 위스키를 우리가 즐기는 만큼 우리의 소비자 분들도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밝혔습니다.

Product Release Information:

더 글렌터렛 트리플 우드 2023: 더 글렌터렛 트리플 우드 2022 릴리즈는 IWSC에서 과반수의 투표로 ‘올해 최고의 스카치 싱글 몰트’로 선정되었습니다. 2023년 올해의 릴리즈는 지난해 보다 낮은 도수에 병주입 되었으며 사용된 캐스크의 영향을 받아 좀 더 달콤한 맛이 납니다. 하지만 친숙하고 그리고 마시기 쉬운 부드러운 위스키인 ‘트리플 우드’의 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아메리칸 그리고 유러피안 오크의 쉐리 캐스크와 버번 배럴에서 숙성됩니다. 이 세 가지 다른 스타일의 캐스크를 섬세하게 사용하여 매혹적인 골드 컬러와 감미로운 특징을 가진 위스키를 완성합니다.

- 싱글 몰트
- 43% ABV

더 글렌터렛 10년 피트 스모크드 2023: 더 글렌터렛 위스키 증류소 역사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피트는 약 1800년 대 초부터 더 글렌터렛 디스틸러리 인근에서 채취되어 왔습니다. 오늘날 증류소는 동일한 증류기에서 피트 위스키와 논-피티 위스키를 함께 소량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피트를 사용하는 프로세스에 따라 더 글렌터렛 10년 피트 스모크드 싱글 몰트는 매년 조금씩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의 피트 스모크드는 약간 더 중후하고 좀더 스모키한 테이스팅 프로파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고급스러운 맛을 가진 싱글 몰트를 완성하기 위해 48.4% ABV에 병주입합니다.

- 싱글 몰트
- 48.4% ABV

더 글렌터렛 12년 싱글몰트 2023: 60개 이하의 엄선한 캐스크로 생산합니다. 핸드 크래프팅으로 생산된 글렌터렛 12년 싱글 몰트는 글렌터렛 레인지의 핵심 상품입니다. 위스키 숙성에 사용한 아메리칸 오크 캐스크가 솔티 캐러멜의 달콤한 맛을 그리고 유러피안 오크 캐스크가 건 과일과 스파이스 향을 이끌어냅니다. 이 모든 것이 근사하게 어우러져 풍부한 향을 가진 싱글 몰트를 완성합니다. ABV 46.4%에 병주입 되었습니다.

- 싱글 몰트
- 46.4ABV

더 글렌터렛 15년 싱글 몰트 2023: 기존의 더 글렌터렛 레인지와 원가 다른 특별함을 선사합니다. 매우 꼼꼼하게 숙성하여 완성한 이 위기는 입안 가득 춤추는 듯한 매혹적이며 고급스러운 깊은 맛을 선사합니다. 토피의 달콤함이 과일과 부드러운 스파이스와 조화롭게 어우러져 한모금 씩 마실 때마다 깊은 여운을 남깁니다. 스코틀랜드의 가장 오래된 디스틸러리에서 정성을 다해 숙성하여 완성합니다. 더 글렌터렛 15년 싱글 몰트는 풍부함이 겹겹이 쌓인 듯한 매우 독보적인 특징이 두드러지는 싱글 몰트입니다. ABV 50.8%에 병주입했으며 한국에 최초로 정식 수입된 위스키입니다.

- 싱글 몰트
- 50.8% ABV

더 글렌터렛 30년 싱글 몰트 2021: 전세계 오직 750병만 출시 된 한정판 위스키입니다. 8개의 캐스크로 완성되는 이 위스키는 아메리칸 오크 리필이 주는 과일의 달콤함이 오랜시간 숙성되어 보다 더 깊고 훌륭한 맛으로 진화했습니다. 유러피안 오크 퍼스트 필이 더하는 깊은 그리고 강렬한 텍스처와 조화롭게 어우러져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이 캐스크들이 가진 모든 영향력이 한데 조화롭게 어울려 명품 싱글 몰트 위스키를 만들었습니다.

- 싱글 몰트
- 41.6% ABV

Company Introductions:

TSL

1990년대 설립된 TSL(태산주류)는 30년 이상의 주류 수입과 유통 그리고 수입하는 브랜드의 현지화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기에 사케 또는 쇼츄 등의 일본 상품을 주로 수입하였으나 최근 프리미엄 아이리시, 아메리칸 그리고 스카치 위스키, 브리티시 진 그리고 벨기에 트라피스트 비어 등을 수입하며 포트폴리오를 확장시켰습니다. 오늘날 TSL은 약 40개 이상의 브랜드를 국내 온시장 그리고 오프시장에 유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최고의 프리미엄 스피리츠를 엄선하여 국내 소비자 분들께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더 글렌터렛은 스코틀랜드의 전원 지역인 퍼스셔의 깊숙한 곳에 자리잡은 더 호쉬, 클리프에 숨겨진 듯 위치하여 있습니다. 터렛 강둑에 위치한 높은 언덕의 측면에 스코틀랜드의 가장 오래된 증류소, 글렌터렛이 있습니다.

The Glenturret Distillery

1763년에 설립되어 약 250년의 역사를 가진 핸드-크래프팅 싱글 몰트 위스키. 더 글렌터렛 디스틸러리는 기술의 자동화에 구애받지 않고 차분히 운영됩니다. 오래된 지식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여 만들어진 위스키 제조 과정은 여전히 자동 기기가 아닌 사람의 손을 통해 진행됩니다. 이 증류소는 맥켈란, 하이랜드 파크, 글렌로시스 브랜드를 소유하고 있는 에드링턴 그룹으로부터 라리그 그룹이 2019년에 인수하였습니다. 라리그는 전 세계에서 최고의 유리 공예품을 제조하는 것으로 알려진 명품 회사입니다.

라리그의 영향으로 글렌터렛 디스틸러리는 이제 새로운 것과 오래된 것을 결합한다는 의미를 담아 글렌터렛의 세계적인 명성에 그 가치를 더할 수 있도록 싱글 몰트 위스키를 라리그의 명품 크리스탈 보틀에 담았습니다.

오늘날 증류소의 위스키 메이킹 팀은 밥 달가노가 이끌고 있습니다. 밥은 그의 인생 30년동안을 위스키 제조업에 몸담아온 업계의 거장으로 그중 27년은 맥켈란에서 마스터 블렌더로 보냈습니다.

- END -